

기
간

마음이 통하는
VOL.15

기
간

마음이 통하는
VOL.15



기획특집
인터넷 코리아 20년,
오늘까지 변화의 발자취

피플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KAIST 전길남 명예교수
KTTU 클로즈업
UCC, 베트남 글로벌 봉사활동
현장 24시
강북네트워크운용본부 경기북부유선운용센터 일산운영팀,
매탄직영점 & 유엔피 동백점



삼복더위로 나이 먹는 벼

그야말로 삼복더위가 기승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열흘 간격으로 이어지는 삼복 기간은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무더운 시기입니다.

복날에는 벼가 한 마디씩 나이를 먹습니다.

벼는 줄기마다 마디가 셋 있는데

복날마다 이 마디가 하나씩 생겨, 벼의 나이를 나타냅니다.

벼는 이렇게 세 마디가 되어야만 비로소 이삭이 쫄립니다.

삼복더위를 이기고 한 마디씩 자라는 벼처럼,

더위를 견디다 보면 우리도 한 마디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무더위 앞에서는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지기 십상입니다.

시원한 계곡과 바다가 그리운 이때,

이열치열 뜨거운 삼계탕으로 몸보신 하고

얼음 동동 띄운 수박화채 한 그릇으로

더위를 식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계절이 찾아 올 때

여름을 얼마나 당당히 견뎠는지,

실하게 맺힌 알곡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Contents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윤모 편집인 | KT노동조합 정책실장 차완규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노동조합 031-727-2835 발행일 | 2014년 8월 12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 그룹희망나눔재단 02-3414-2053 인쇄 | (주)삼립인쇄 02-469-7111



04 KTTU NEWS



12 피플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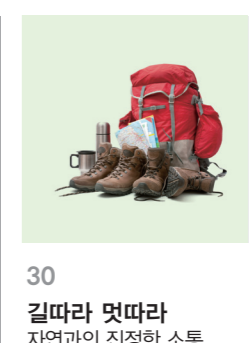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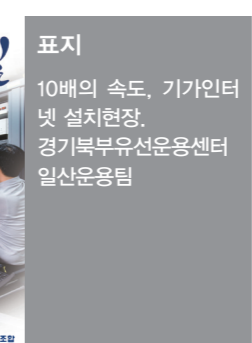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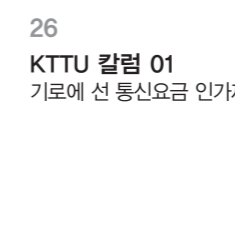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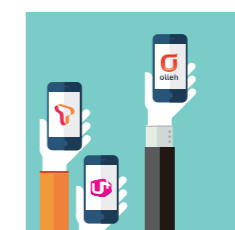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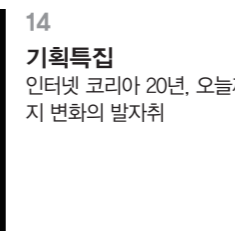
08 KTTU 클로즈업 UCC, 베트남 글로벌 봉사활동



07 2014 vol. 15 08



18 해피투게더 자녀교육에 발목 잡힌 노후



표지 10배의 속도, 기가인터넷 설치현장. 경기북부우선운용센터 일산운용팀

30 길따라 멧따라 자연과의 진정한 소통, 이제는 백패킹이다

32 건강 & 과학 건강 100세, 문제는 혈관

KTTU news



2014년 현장작업 스마트폰 대개체 공급 추진

노동조합과 회사는 개통/AS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2014년 현장작업 스마트폰 대개체 공급 추진'을 협의하였습니다. 현장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급 대상
 - 직무명 : 고객센터/MOT
 - 대상 수 : 495명
- 공급 기종 : 삼성 갤럭시 S5
- 추진 계획
 - 시행 : 8월 1일 ~ 8월 30일 순차적 시행

- 개통처리 : kt M&S를 통해 개통작업 처리(개통일자 및 방법 별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 No.657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성과급 지급 안내

- 지급 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G직 및 A직 직원(청경 포함)
- 지급 기준
 - 지급 산식 : 월 기준급 X 지급률
 - 지급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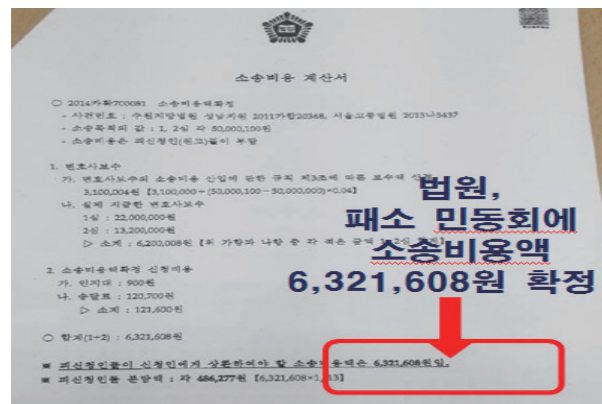
구분	전사	부문	담당	팀	개인	계
G직	105	-	-	-	-	105
A직	-	25	-	-	60	85

- 계산 기간 : 2014년 6월 1일 ~ 7월 31일(61일)

- 지급일 : 2014년 7월 25일(금)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 No.656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규정 효력정지가처분 승소



“법원, 선거무효소송 패소한 민동회에 소송비용액 확정”

법원이 민주동지회 주장을 기각했다. 2014년 5월 15일(목) KT노동조

합의 선거관리 규정에 대해 민주동지회(이하 민동회)의 이상호와 류방상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24일(화) 성남 법원 재판부에서 각하 처리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승소하였다.

연말 선거 앞두고 선거관리규정 정비

앞서 KT노동조합은 4월 28일(월)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2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제14조(피선거권) △제22조(개인유인물) △제39조(보궐선거) △제43조 (선거운동) 등 총 4개 조항을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조직축소로 인해 보궐선거의 잔여임기를 조정하고, 선거로 인한 업무불편을 지양하기 위해 무분별한 통신매체 홍보 등을 자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은 지난 선거에서 민동회가 수차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위반했음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삼지 않았으나, 올해 연말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시도때도 없는 흠집내기에 강경 대처한다!

민동회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선거관리규정의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각 규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자치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그 신청의 이익이 없기에 각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사건 신청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 즉, 민동회 이상호와 류방상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민동회의 아니면 말고식 소송제기와 흑색선전은 지금껏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절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우려하는 것은 민동회의 이 같은 불순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조직이 혼란에 처하고 대외 이미지 실추로 이어져 고객으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목적은 오로지 집행부를 흠집을 내 연말선거에서 노동조합을 장악하는 것일 뿐 결코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동회, 소송비용 6,321,608원 내라!”

법원은 7월 18일(금) 11대 선거관련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KT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고, 소송을 제기한 민주동지회(이하 '민동회')에 대해 소송비용을 확정했다.

이는 11대 선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민동회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민동회가 제기한 11대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고등법원 1, 2심을 거쳐 KT노동조합이 승소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1항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소송비용액 6,321,608원을 결정했다.

정윤모 위원장, “소송비용 책임도 회피해선 안될 것”

정윤모 위원장은 “조직의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할 것”을 수 차례 대내외에 선언한 바 있다. KT노동조합은 무분별한 소송과 계속되는 비방과 매도, 조직혼란과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따라서 금번 소송비용 확정액 역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민동회는 지난 2011년 KT노동조합 11대 선거와 관련, 선거효력가처분신청 1·2심, 선거무효소송 본안소송 1·2심 모두 패소했다.

IT사무서비스연맹 대표자회의 개최 및 현장순회 실시



“빠른 시일 안에 회원조합 방문, 연맹 발전 도모할 것”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은 지난 7월 16일(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7차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7차 대표자회의는 연맹 회원조합 위원장과 집행부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연맹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윤모 연맹위원장은 “빠른 시간 안에 각 회원조합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 더욱 발전된 연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서 정 위원장은 7월 14일(월) 엔에이치테크노동조합을 시작으로 회원 노동조합을 순회 했다. 정 위원장은 각 단사 노동조합을 찾아 연맹 발전을 위한 방안을 토론했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단체교섭 승리 위한 현장의견조사단 및 전담반 운영

노동조합은 8월로 예정된 올해 단체교섭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현장 의견조사단 및 전담반 을 운영 중이다.

올해 단체교섭은 현장 사기진작에 초점을 맞췄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합은 7월15일(화)부터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을 전국 지부에 파견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합간부들은 현장 조합원 및 조합간부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며, 사기진작을 위한 최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고충사항을 취합하여 전담반과 논의 할 것이다. 단체교섭 전담반에 참가한 중앙상무집행위



원들은 2014년 고용환경, 최근 몇 년간 교섭결과와 kt 및 국내 통신 시장 상황, 기업별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최적의 논리와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정윤모 위원장은 “올해는 무엇보다 현장의 사기진작이 최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며, “현장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현재 kt가 처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는 2014 단체교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하반기 복지포인트 지급안내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자
- 지급내역 : 30만 포인트
- 지급일자 : 2014. 7.10(목)

모든 이는 지급사실 여부 확인까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00,000 Points

■ 지급대상 : 상무보 이하 전 직원(지급일 현재 재직자)

■ 지급내역 : 30만 포인트

■ 지급일자 : 2014.07.10(목)

- 복지 포인트는 지급시점 이후 3년까지 이월 사용가능

※ 포인트 확인방법 : kale → 회사생활 → KT복지관 → 나의복지 → 복지포인트 (포인트 지급내역은 7/10(목) 13시 이후부터 확인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권한위임 추진

신속한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체계 구축 및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권한제공을 위해 권한위임을 추진합니다.

- 부문 → 사업부문(장)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강화
 - 지역본부 → 지역 책임경영을 위한 지역본부(장) 권한 강화
 - 지사/센터 → 영업/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사장/센터장 권한 강화
 - 연말/연초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차기년도 자원 선배정 체계 도입
 - 기업문화 관점의 일하는 방식 추가 과제 발굴
-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회 동아시아 통신노조 포럼참가, ICT 융합시대 조합의 나아갈 방향모색

KT노동조합은 지난 6월 23일(월)부터 26일(목)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0회 동아시아 통신노동조합 포럼에 참석했다. 이는 해마다 KT노동조합과 일본의 NTT노동조합,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이 개최하는 포럼으로 올해 주제는 “각국의 디지털융합 현주소 및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ICT 융합 · 경쟁환경, 통신노동자 불안 야기

먼저,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인 ICT 산업 통합 추세와 경쟁환경이 고용 환경 등 통신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발제자들은 통신산업의 융합과 디지털화가 더 좋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반면, 이면에는 통신노동자들의 지위와 고용불안을 일으킨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강화 ▲디지털 추세 흐름에 대한 법규확립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노동조합의 발전 방향이 다원화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단체교섭을 이끌고 단체협약을 맺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

정 위원장, “소통 · 연대, 전문성 함양으로 극복”



단상에 선 정윤모 위원장은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은 정체성 혼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우려하며, “중장기적으로 조합활동의 다양화와 소통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전문성을 갖춘 연대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은 NTT노동조합, 중화통신노동조합 간부들과 끊임없는 정책교류 및 연대를 통해 동아시아 통신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2014년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



KT노동조합은 6월 27일(금) 대전 인재개발원 강당에서 '2014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전체 대의원 188명 중 135명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단일 안건인 예산 재편성(안) 승인에 관한 사항이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조합원 수 줄어 예산 재편성 불가피

이는 지난 4월 특별 명예퇴직 등으로 조합원 수가 6천명 이상 감소해, 3월 전국 대의원대회를 통해 승인 받은 2014년도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조합은 6월 11일(수) ~ 12일(목) 재정분과위원회 회의 및 6월 17일(화)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연이어 열고, 해당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정윤모 위원장 “현장 사기진작 위해 하반기 단체교섭에 총력”

정윤모 위원장은 “뼈를 깎는 특별명퇴 이후 현장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 거듭 강조하며, “연말까지 당초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며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합은 특별명퇴 이후 현장의 사기 진작을 최우선시하여 ▲승진제도 부활 및 인사제도 개선과 ▲특별 대사면을 회사에 요구해 관철시켰고 ▲PS제도 지급방식 변경 ▲유니폼 개선 ▲글로벌 어학연수 상/하반기 실시 등 복지제도 정비작업을 꾸준히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7월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조합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반기 단체교섭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강조했다.

2014 상반기 중등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대상자 발표



KT노동조합은 6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KBN 방송실에서 2014년도 하계 조합원 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대상자 30명을 선정했다. 추천에는 조합 한호섭 사업지원실장, 차원규 정책실장, 최장복 조직실장이 참여했으며, 지역별 박스추첨을 통해 진행됐다.

3회를 맞은 글로벌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현재 중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2,959명이 접수해 뜨거운 호응을 실감케 했다. 특히 이번 어학연수부터는 현장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키로 했으며, 신청자 중 부부사원 중복 및 중학교 외 자녀, 기 당첨자(자녀 기준), 조합 간부는 제외했다.

정윤모 위원장, IT사무서비스연맹 단독 위원장 추대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6월 19일(목) 한국노총 5층에서 2014년도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대의원 161명 중 115명이 참석해 대회가 성원됐다.

연맹은 이날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2013년도 사업보고 ▲2013년도 결산보고 ▲2014년도 사업계획(안) ▲2014년 예산(안) ▲임원 선출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IT노동자 지원센터 확보 ▲해외 ICT유관 노동조합과 국제교류 ▲IT지역본부 설립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60명 중 KT노동조합 15명), 한국노총 파견 중앙위원(10명 중 KT노동조합 2명), 한국노총 파견 선거인단(177명 중 KT노동조합 59명), 연맹 임원(수석부위원장: LG유플러스 신건택 위원장, 부위원장: SK브로드밴드 윤세홍 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특히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연맹은 지난해 KT노동조합 가입 이후 유

지해오던 정윤모·최두환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탈피, 정 위원장을 단독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이달부터 연맹 위원장직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인사말을 통해 정윤모 위원장은 “단사 간 벽을 넘어 5만 IT사무서비스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등 조합원 지위향상을 위해 당당히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 내 입지를 공고히 하여 대정부 교섭력을 높이는 등 IT사무서비스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조합간부 확대회의, 인사보수제도 개선, 현장 사기진작에 초점

KT노동조합은 6월 16일(월) 오후 2시 분당사옥 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조합간부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상무집행위원 및 12개 산하조직 대표자, 지방본부 조직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보수제도 개선 ▲2014년 밴드승격 및 SM선발 계획 ▲그룹PS 지급방식 변경 ▲A직 성과급 체계변경 ▲특별대사면 시행 ▲고객서비스직 운영방향 개선 ▲유니폼 지급개선 ▲데이터 출산 청원휴가기간 연장 등의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먼저, 특별명예퇴직 시행후 현장조직 안정화를 위해 힘써 주신 조합간부들께 감사 드린다”고 인사한 뒤 “이번 노사합의사항은 무엇보다 현장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설명했다.

※ 인사보수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과 인종을 넘어 나눔의 가치 실현! “8년 만의 친정나들이, 꿈만 같아요.”

UCC, 베트남 글로벌 봉사활동

‘깜짝상봉’ 이벤트 마련... IT나눔, 음악회, 의료봉사도 펼쳐

노사문화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KT노동조합과 kt가 주도해 발족한 기업 간 노사공동 나눔협의체(Union Corporate Committee, UCC)가 7월 13일부터 6일간 베트남에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봉사활동을 펼쳤다. UCC의 글로벌 봉사활동은 UN과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통해 올해로 3년째 지속돼 왔으며 그 동안 100명 이상의 이주 여성과 300명이 넘는 베트남 현지 가족들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한국-베트남간 대표적인 봉사활동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올해는 특히 화상상봉 가족 중 한 가족을 베트남 하노이로 직접 데리고가 현지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깜짝상봉’ 이벤트도 마련되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됐다. 또한 베트남 파병 50주년을 맞아 양국간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화상상봉 외에도 더욱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해 이목을 끌었다. 우리 교민과 베트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위문음악회를 마련했으며 ‘kt 드림스쿨’의 화상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1대 1멘토링을 펼치는 ‘글로벌 IT 희망 나눔’ 활동도 준비하여 현지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 IT 지식나눔 봉사단인 kt IT서포터즈도 베트남 가족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IT기술을 전파하고, 다양한 스마트 체험교육 등 ‘IT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단은 KT노사를 중심으로 UCC 회원사, KT노사 장학생, YTN·MBC 기자 등 총 40여 명으로 구성했다.

정윤모 위원장, 화상상봉장 격려 방문

UCC글로벌봉사단은 화상상봉에 이어 ▲IT서포터즈 활동 ▲의료봉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베트남 직업학교와 노동청을 방문해 ‘글로벌IT희망나눔’을 시행했다. 이날 일정에 앞서 정윤모 위원장, 신현옥 경영지원실장, UCC 회원사 관계자 등은 한국 화상상봉장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kt하노이사무소 봉사단을 직접 격려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무더위에 고생이 많다”고 인사한 뒤, “비록 화상이지만, 현지 친정 가족들이 반가운 딸과 아이들 얼굴을 보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kt하노이사무소와 한국의 강북·강남·홍성·전북 4개 화상상봉장을 연결해 8가족의 화상상봉을 진행했다. 특히 강남 화상상봉장에 조카 호민지씨가 등장하자, 이모 트란띠끼씨는 연신 눈물을 흘렸다. 트란띠끼씨는 “호민지가 어려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공부를 곧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워 시집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미안해 했다. 이어 “부디 한국에서 남편,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고 베트남에서 못 이룬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날 오후 KT노사는 화상상봉과 함께 베트남 노동청과 하노이 상공회의소를 통해 직업전문학교 및 낙후지역 학교에 노트북 20대를 기증한다. 이를 통해 노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화상교육 시스템인 'kt트립스쿨'을 활용해 1:1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들이 조부모님 뵈 수 있게 돼 더할 나위 없이 행복

KT노사가 주도하는 UCC 글로벌 봉사단은 7월 16일(수) 하노이에서 '깜짝 상봉'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는 화상상봉 40가정 중 한 가족을 하노이로 초청해 직접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주인공이 된 판단튀씨는 "2006년 한국으로 건너와 돌아가신 시어머니 병수발과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돌보느라 부모님을 한 번도 뵈지 못했다"며,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돼 행복하다"며 눈시울 붉혔다. 이어 "나는 물론, 아이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꿈 같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판단튀씨의 어머니는 "시어머니도 편찮으신데 손주까지 아파 딸 걱정이 너무 많이 됐다"며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저 오로지 바라는 것은 딸아이 가족이 우리 걱정은 말고 저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며 연신 눈물을 닦았다. 지켜보는 봉사단원과 취재진도 간혹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판단튀씨 가족의 만남과 사연은 베트남국영방송 및 YTN, MBC, 중앙일보 등 많은 국내의 언론이 주목했다.



KT노동조합, 베트남우편통신노동조합 예방 '양노동조합간 연대 강화' 강조

한편 베트남 하노이에서 UCC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KT노동조합 황성관 사무총장 및 최장복 조직실장 등은 7월 16일(수) 오전 11시 베트남우편통신노동조합을 예방해 양 노동조합간 교류강화를 약속하는 시간도 가졌다. 베트남우편통신노동조합 위엔투 이후에 부위원장은 KT노동조합 UCC글로벌봉사단을 반갑게 맞으며 "바쁜 봉사활동 중에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먼저, 4월 세월호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KT노동조합 황성관 사무총장은 정윤모 위원장 친서를 전달하며 "UCC 글로벌 봉사단 활동을 통해 양국 통신노조의 연대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교류를 다짐했다. 한편, 베트남우편통신노동조합은 ▲올해 베트남 정부, 통신사업 적극 지원 ▲7월부터 각 지역별 통신사 육성·확대 ▲통신관리 비중 축소 및 인터넷서비스/미디어사업 강화 ▲베트남통신노동조합으로 명칭변경 등 현안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KT노동조합에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연대를 호소했다.

정 위원장 '온정이 있는 사회 만들어 갈것'

KT노동조합은 이번 UCC 봉사활동이 단순한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이를 발판 삼아 한국·베트남간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글로벌 IT 리더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T노동조합 위원장인 정윤모 위원장은 "오늘날 기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실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UCC 글로벌 봉사활동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3년째 내실 있게 발전시켜 왔으며 베트남 우편통신 노동조합 및 한인단체 등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라 강조하며, "베트남에 다수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어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오는 만큼, 기업의 가치에 앞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UCC는 노사가 손잡고 기업간 벽을 허물며 온정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더 크게 앞장설 것"이라 약속했다. 국경과 민족을 넘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UCC봉사활동, 금번 더욱 성공적인 베트남 현지 봉사활동의 안착으로 향후 UCC의 활동과 보폭이 더욱 넓어질 것. 한국·베트남 양국의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미래 가치를 위한 KT의 도전이 필요한 때!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

우리나라에 처음 인터넷이 도입된 지 30여년, kt가 국내 최초로 인터넷 상용서비스를 시작한지 올해로 20년이다. 한국은 이제 인터넷에 관한 한 명실상부 세계의 리더 국가에 올랐다. 이 놀라운 역사의 기틀을 마련한 이는 바로 전길남 교수다.

2012년, 인터넷 분야 세계 최대 민간국제기구 '인터넷 소사이어티'가 만든 '인터넷 명예의 전당'에는 인터넷 세계화 공로를 인정해 그의 이름이 헌정됐다.

인터넷의 더 큰 변화를 앞둔 시점,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만나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kt의 지원으로 가능했던 인터넷 개발

우리에게 흔히 인터넷 개발자로 알려진 전길남 교수는 국제적으로는 인터넷 세계화에 앞장 선 인물로 더 알려져 있다. APAN(아시아·태평양 초고속 연구망) 등 그가 만든 인터넷 국제조직은 15개가 넘는다.

전 교수는 1979년 정부의 수출형 국산 컴퓨터 개발 요청을 받고 입국했지만, 네트워크 연구를 병행하기로 결심했다. 구미 전자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분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던 대학원생들과 함께 네트워크 연구를 시작한 그는 1982년 5월 SDN(System Development Network)으로 드디어 전자기술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간 네트워크 교신에 성공했다. 미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한국 최초의 인터넷이 구축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카이스트로 몸을 옮겨 본격적인 인터넷 개발을 시작한 전 교수는

SDN을 국내의 통신망과 연결해 점차 인터넷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kt와의 인연도 이때부터다.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려면 재원이 필요했지만 넉넉지 않았다. 그때 kt의 주도로 삼성, LG, 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졌다. “생각해보라. 경제 수준도 안 되는 80년대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유엔의 원조를 기대한 것도 아니다.



KT trade union

12
13

잘해보고 싶다는 형그리 정신이 있었다. 당시 국제표준도 아닌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게 kt로서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상용화되기까지 10년을 kt에서 주도적으로 계속 서포트 했다. 이걸 굉장한 거다! kt의 지원이 없었다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작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거다. 1992년에 인터넷을 kt에 넘겼다. 24시간 운영하기에는 카이스트보다 kt가 낫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kt가 상용화를 준비했다.”

1994년 드디어 '코넷(KORNET)'을 시작으로 인터넷은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코넷은 당시 전자우편과 파일전송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속도는 현재 인터넷 평균 속도인 100Mbps의 만분의 일에도 못 미치는 9.6Kbps에 불과했다. 전화 모뎀을 거쳐 90년대 후반에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kt는 ADSL을 거쳐 VDSL, FTTH 등을 확장해갔다.

속도 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인터넷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전 교수는 정작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고 했다. “100메가, 1기가, 10기가...! 우리는 숫자 얘기만 하고 있다. 스피드는 앞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스웨덴 같은 선진국은 속도 얘기 안한다. ‘우리 사회에 인터넷이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가?’라는 퀄리티를 얘기한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은 좋지 않다. 서로 경쟁하는 사이버 전쟁에서는 강국이라는 게 중요하다. 인터넷 강국은 미국과 중국이다. 우리가 정말 강국을 원하나? 사이버 전쟁이 나면 중국을 이길까? 우리는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다.”

전 교수는 인터넷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할 힘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이건 전 세계의 문제다. 얼마 전 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는데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럼 버려야 하나? 아니면 다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할 건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러한 첫 번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터넷 선진국이다.”

전 교수는 다가 올 미래의 인터넷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미래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한 건 보안이다. 스마트폰 덕분에 10년 이내에 사용자는 두 배로 늘어나 누구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ICT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인 만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등 전 지구적인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kt의 활동은 고무적이라고 했다. “kt가 르완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초고속인터넷 망을 합작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다. 이같은 장기적인 투자도 인터넷 선진국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다. 르완다에서 성공하면 우간다, 탄자니아 등 옆 국가들도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

전교수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다. “2020년이면 사물인터넷 장비들은 약 1조개가 될 것이다. 다 연결된다. 스마트 홈을 중고교생들이 재미로 공격할 수도 있다.



더 심각한 건 자동차가 사물인터넷으로 해결될 경우 만일 공격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 전력 시스템도 다 스마트로 한다. 여기서부터는 사이버 전쟁의 카테고리다. 우리는 자신 있나? 개인정보 보안도 제대로 못하는데? 인터넷은 공격하기는 쉬운데 방어하기는 엄청나게 어렵다. 구조적으로 그렇다.”

그는 현재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고회의 나이임에도 형형한 눈빛으로 인류를 위한 열정을 멈추지 않는 전길남 교수. 그가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kt의 도전을 꼭 당부했다.

“인터넷은 운영자, 사용자, 사용자의 부모 입장에서 모두 안전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에 kt도 직면해 있다. 속도보다는 질이 문제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kt가 다시한번 그러한 도전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30년을 괜찮게 해 왔으니 앞으로의 30년도 도전해 주기 바란다.”

인터넷 코리아 20년 - 오늘까지 변화의 발자취

kt, 코넷에서 기가인터넷까지 진화를 이끈다

1994



6월 20일 국내최초 인터넷 상용서비스 시작 (9.6Kbps)

1997



ISDN등장, 인터넷 사용 시 전화통화 가능, 영상서비스 제공 (최대2Mbps)

1999



ADSL 초고속 인터넷 시대 개막(최대8Mbps) IT코리아 초석 마련

2000



초고속 인터넷통합브랜드 '메가패스Megapass' 출시, 가입자 4개월여만에 100만명 돌파

2002



무선 초고속인터넷 '네스팟(NESPOT)' 상용화, 무선 초고속인터넷 시대 개막

2003



세계최초 유무선 결합서비스 '네스팟스윙 (Nespot-Swing)' 상용화

2004



세계최초 초고속인터넷+TV서비스 '홈(Home N)' 출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상용화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1994년 6월 20일 kt(당시 한국통신)가 국내 최초의 상용 인터넷서비스 '코넷(KORNET)'을 내놓기 전까지 인터넷은 일부 소수 기업이나 교수, 연구자들만 사용 가능한 통신 네트워크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약 4천만 명을 넘고 있다.

이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어린이와 일부 어르신을 뺀 모든 국민이 쓰는 셈이다.

20년 전, 코넷 등장 이후 인터넷은 통신망의 발전을 거듭해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접속하는 하나의 세상이 됐고, 생활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며 일상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재가 되었다.

전화 모뎀으로 접속하던 국내 최초 인터넷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처음 사용된 시기는 1982년 5월로 거슬러 간다. 당시 서울대와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국전자기술연구소가 TCP/IP 네트워크로 연결돼 이메일을 전송한 것이 국내 인터넷의 시초로 기록된다.

일반인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보다 10여년이 지난 1994년이다. kt가 국내 최초의 인터넷 상용서비스 코넷을 시작하면서 전자우편, 파일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이얼 업 즉, 모뎀을 통해 해당 서비스 번호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인터넷에 접속했는데 당시 인터넷 최대 지원 속도는 9.6Kbps.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평균 속도가 100Mbps인 것을 생각하면 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속도다. 1MB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내려 받으려면 약 1시간가량 걸렸

으니 지금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당시 느린 인터넷을 통해 화보 사진 속 모델의 전신을 보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 늘 얼굴까지만 봤었다는 우스개 농담이 있을 정도였다. 월 인터넷 사용료는 4만 원 정도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그나마 처음 서비스 되던 지역은 서울과 대전, 포항 등에 한정됐고 당시 kt의 인터넷 운용인력은 10여명에 불과했다.

하이텔 등 이른바 PC통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던 시기도 이때였다. 주로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지만 사람들은 PC통신을 통해 낯선 온라인 세계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그래도 이를 기반으로, 이후 1997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와 웹메일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대중화를 앞당긴 '메가패스'

인터넷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1999년 6월 kt가 ISDN방식에서 벗어나 ADSL시장에 들어오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본격화됐다.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이란 의미의 ADSL은 기존 가입자 회선인 구리선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즉, 일반 전화와 데이터 통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상용화되는 이 시기부터 인터넷은 우리 생활 속에 일부로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은빛 안경을 쓰고 온 몸에 은색을 칠하고서 상어와 경쟁하는 남자가 등장하던 TV 광고를 기억하는가? 바로 당시 kt의 초고속 인터넷 통합 브랜드 '메가패스' 광고

2005



국내최초 100% 덕내 광케이블 서비스 시작 (FTTH, Fiber To The Home)

2006



세계최초 휴대인터넷 WiBro 상용화

2008



국내최초 실시간 IPTV 서비스 상용화

2009



국내유일 디지털 위성방송, 올레 tv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시작

2012



LTE WARP 상용화, 최대 2배 빠른 LTE 서비스 가능

2014



유무선 통합 GiGA 인터넷 시대 개막

장면이다.

2000년 5월, kt는 ‘대용량(Mega)의 정보를 더 빠르게(pass)’라는 의미의 ‘메가패스’라는 이름으로 ADSL, B&A, 위성인터넷 등의 초고속 인터넷 통합 서비스를 개시했다.

여기서 B&A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과 같은 대형 건물의 구내전화선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한 서비스로 기존 전화선으로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했다. 또한 위성인터넷은 정보량이 적은 상향은 전화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고, 정보량이 많은 하향은 위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최대 1Mbps를 가능케 했다. 2000년 당시 월 이용료는 2만8천 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즐기기 시작했다. 당시 광화문에서 “유쾌, 상쾌, 통쾌!”를 외치던 ‘메가패스 장군’이 나오던 TV 광고는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으며 아직도 우리에게 친근하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kt는 2000년 9월, 국내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 kt는 FTTH(Fiber To The Home · 가정용 광가입자망)를 2006년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kt지사에서 각 가정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한 기술을 뜻하며, 이전 VDSL 인터넷 서비스 속도의 5배인 100Mbps를 제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 라이프,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작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3년 66%에서 10년이 지난 2013년, 82%로 증가했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의 이용률은 99%에 육박하고,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43%가 일주일 평균 14시간 이상,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니 이제 인터넷은 일상의 중심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 상용서비스 코넷이 등장한 이후 20년 만에 세상이 변한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우리 생활 속 커뮤니티, 쇼핑, 교육 등 각 분야는 일대 혁신을 맞았다. 많은 이들이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를 통해 추억 속 동창을 찾았고, 사이버 상에서 일촌관계를 맺으며, 메신저 창의 채팅을 통해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정보를 찾을 때 이제 더 이상 제일 먼저 도서관이 아닌 손쉽게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생활화 됐다. 쇼핑과 전자상거래 역시 인터넷으로 인해 새로운 장을 맞았다.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 가격 비교 검색을 하며 공동구매, 직거래, 해외구매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온라인 상거래를 즐기는 물론 다양한 이용후기를 나누는 등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다.

교육 분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후반 사이버 수

능 강좌 등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교육이 본격화됐다. 공교육 현장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전국 학생들이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으며 사교육 업체들도 외국어와 각종 고시 등 다양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디어 분야 또한 인터넷과 방송이 합쳐진 IPTV 같은 융합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 kt가 애플의 아이폰을 도입한 이후, 국내에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정착되면서 인터넷은 모바일로 급속히 넘어가며 보다 우리 삶 속에 더 깊이 파고들고 있다. 인터넷과 관련된 경제 생산량을 의미하는 국내 ‘인터넷 경제’의 규모는 2010년 75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 GDP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8.3%)에 이어 둘째로 높은 것이다.

대한민국 인터넷을 연 kt, ‘기가시대’도 선도

이제 인터넷은 모바일을 뛰어넘어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으로 진화하고 있다. 냉장고와 청소기 같은 전자제품은 물론 자동차, 건강용품, 제어장치 등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돼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전달, 분석하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앞으로 차기 인터넷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모만도 2013년 2조3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3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기기의 수는 1조개가 될 전망이다.

이에 kt는 ‘기가시대’를 명명하고,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또 한번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1Gbps(1천Mbps)의 속도를 가진 기가인터넷을 본격 제공한다. 1GB 짜리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이전 분 단위가 아니라 10초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초고화질(UHD)급 미디어 콘텐츠를 유무선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kt가 2013년 12월 강남 지역 주요 21개 아파트단지에서 기존 유선인터넷을 1Gbps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장비를 구축하고 기가인터넷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스타벅스에서 기가급 올레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는 등 우리의 인터넷 환경은 더욱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20년간 인터넷 발전이 전반부였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그 후반부로, 인터넷 서비스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인터넷 빅뱅’을 가져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전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분야에 걸쳐 인터넷이 우리 삶을 바꿀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코넷, FTTH, 기가인터넷 등을 개발하며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이끌었던 kt, 다가올 기가토피아 시대에서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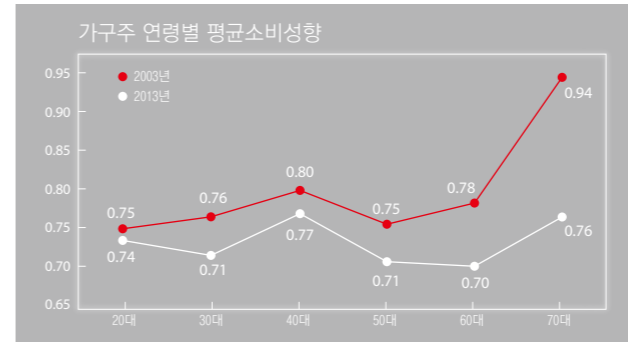
자녀교육에 발목 잡힌 노후

진정한 자녀교육은 노후준비에서 부터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떠밀려 노후대비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각 가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규모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40대에 접어들면 노후 준비와 자녀교육 사이에 우선순위를 놓고 고민이 커진다. 어떻게 하면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과연 현명한 해결책은 없을까?

가계의 교육비 부담 실태

2013년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대학 마칠 때까지 평균 22년 양육하는데 3억 896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1,400만 원 정도 드는 셈으로 3년 전 같은 조사 때보다도 18% 늘었다. 양육비는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해 대학생 때 연간 1,9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열풍 탓에 자녀 연령대별 연간 양육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가계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가구당 연간 가계소득은 월 평균 416만2000원이다. 연간 소득의 28%를 자녀 양육에 쓰는 셈이다.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생애주기가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에 의하면 연령별 소비성향은 소득이 높지 않은 20~30대에 높았다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구가하는 40~50대에 저축 증가로 낮아지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를 띠는데 우리나라는 W자의 특수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 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은 40대 가구가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중장년층의 자녀 교육비 지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육비 지출이 우리나라 40대 처분가능소득의 약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비 지출이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을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자녀와 부부, 우선순위 정하기

이르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는 사교육으로 대학 등록금을 모을 여력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현실이다. 부부의 노후 준비는 정년에 임박할 때까지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일단 자녀 교육부터 해결한 후 노후 준비는 그 다음 순위로 미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시간과 자금 모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보다 조기 퇴직 등으로 갑자기 줄어들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교육비와 노후자금에 배분해야 한다.

먼저 부부가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자. 사교육비 지출을 소득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5% 정도는 대학자금 명목으로 꾸준히 비축한다. 자녀 교육비와 노후대비 저축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다면 둘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자녀교육에 전적으로 희생한 후 훗날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지울 것인지, 지금 자녀 교육의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은퇴 후 자녀의 짐을 덜어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장성한 자녀와의 관계를 상정해 보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할 경우, 자녀 부부는 29년의 취업기간 중 26년 동안 부모를 부양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기간이다. 만일 부모의 노후를 자녀에게 떠넘리게 된다면, 지금 막대한 교육비를 쏟아 부으며 성공하기를 바랐던 자녀가 기대했던 만큼 여유롭게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 이상 소득도 없고 모아 놓은 돈도 없이 자녀에게 기대는 부모는 훗날 자녀에게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성공시킨 경우라도 부모의 보상심리와 자녀의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그간의 희생에 대한 부모의 보상심리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지탱하기 위해 애쓰는 자녀의 안간힘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기 쉽다. 더욱이 부모의 경제 사정이 나쁠수록 갈등은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다. 결국 은퇴기에 직면한 부모의 부족한 노후 준비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자녀교육보다 노후준비

항공기 운항 전 승무원이 설명하는 비상 시 행동 요령을 살펴보면 위급 상황에서 보호자가 먼저 산소마스크를 쓴 뒤 아이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 주도록 안내한다. 보호자부터 안정된 상태여야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노후를 희생하면서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부모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재정적 안정이 먼저다. 결국 자녀 교육보다 노후 준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무조건적인 헌신과 자녀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자신과 자녀 모두를 위한 현명한 길일 것이다.

자녀교육과 노후준비를 아우르는 기본 원칙

1. 교육비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 준비한다.
2. 사교육비 지출은 제한하고 훗날 학자금 명목으로 조금씩 비축한다.
3. 노후준비를 연금보험상품에 국한하지 않는다.
4.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5. 은퇴 이전부터 자신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업종을 찾는다.

10배의 속도! 100배의 고객 만족! 기가인터넷, 설치 현장을 가다!

강북네트워크운영본부 경기북부유선운영센터 일산운영팀

기가인터넷 상용화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속도를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급으로 높이고, 무선 분야도 LTE와 기가 와이파이 망을 함께 이용하는 이중망 융합기술인 기가패스(GiGA Path)와 기존의 구리선을 그대로 활용해 3배 이상 빠른 속도를 체험할 수 있는 전송기술(기가 와이어)을 함께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달 10일 일산에서는 강북 최초로 대용량 OLT설치공사가 진행됐다. 새벽을 하얗게 지새우던 그 현장을 들여다봤다.



대용량 OLT, 속도체감이 가장 빠른 기술기반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7월 9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도 kt일산지부 3층 전송실은 대낮처럼 환했다. 반갑게 맞이하는 조합원들의 얼굴에 그간의 피로가 적잖이 묻어났다. 하지만 곧 새벽1시에 있을 OLT 교체 작업을 앞두고 설렘과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양사업지원센터 일산고객기술팀의 송광훈 조합원은 방금 전까지도 준비 작업으로 온통 땀으로 젖었던 터라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왔으며 자리를 안내했다. 설치공사를 위한 회의를 앞둔 시점이었다.

“지난 5월 황창규 회장께서 기자회견담회를 통해 향후 3년간 4조5천억 원을 투자해 기가인터넷(GiGA FTTH)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가인터넷, 그리고 LTE와 와이파이를 결합한 이중망 융합기술, 전화선 기반 초고속 전송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죠. 강북지역에서는 오늘 처음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기가인터넷 구축은 1차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서울 도곡동 래미안아파트 등 강남 3구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됐다. 대표들과 협약을 맺어 인터넷을 1Gbps급 속도로 업그레이드해 순조로이 진행 중이다. 이는 대용량 인터넷 장비 10G-OLT(Optical Line Terminal, 광회선 종단장치)의 구축으로 가능했는데, 오늘 공사 또한 이 대용량 OLT 설치작업이다.

“2월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왔습니다. 강남 시범사업의 고장 사례부터 수집해서 제조사와 기술과 환경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꾸러왔죠. 기가인터넷은 유선인터넷 속도를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급

으로 높이고, 무선분야도 기존 150M보다 3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구현 방법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빠르게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기반이 대용량 OLT사업입니다. 강북에서도 원거리 사업장이 많은 경기북부유선운영센터에 전체 물량 42대의 90%인 38대가 신설되었고, 이제 새벽 1시에 일산 운영팀 관내 신원센스빌 아파트가 첫 수혜 지역이 됩니다.”

대용량 서비스와 스마트 단말의 증가로 2017년이 되면 데이터 트래픽이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 속도는 100Mbps 수준. 그만큼 속도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kt는 기가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UHD 기가TV, 스마트 에너지, 통합보안, 차세대 미디어,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관제 등 인간과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융합 서비스를 구현하는 본격적인 기가토피아(GiGAtopia)실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스템 안정화까지 긴장 늦출 수 없어

송광훈 조합원은 대용량 OLT는 시스템 대형화에 따른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했다. 때문에 기존 소용량 OLT와 달리 공통부를 이중화로 구성해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기가인터넷 서비스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고객들이다. 기존에 비해 배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초고화질 최신 영화를 10초 만에 다운로드 가능하고, 올레TV도 국내 IPTV중 최고 화질의 Full HD로 즐길 수 있다. 또 기가 와이파이를 통해 무선 인터넷도 기가급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UHD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존 속도로는 업 링크가 힘든데 기가 서비스로 훨씬 더 좋은 콘텐츠를 끊어짐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존에는 20km 거리 내에 서만 고객을 수용했지만, 새로운 장비는 대용량인 만큼 고객 수용 지역을 확대해 파주나 문산까지 집중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스템 이상 유무를 파악해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제반 조건이 많이 필요한 상태다. 선로의 특성을 살피고 장비들도 보충해줘야 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장비와 다르

다보니 숙달되기까지 운영자들의 노력도 요구된다. 송 조합원은 “고도화작업을 하면서도 장비들에 대한 부화분산작업까지 이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고도화 해 온 방식이 갑자기 바뀌고 새로운 장비를 갖고 들어오니 솔직히 그만큼의 숙달된 시간 할애를 못했어. 처음이라 운영에 서툰 면이 없지 않지만, 조합원들이 열심히 배우며 꾸준히 해나갈 겁니다.”라고 했다.

안정화 단계도 거쳐야 하는 만큼 고양권은 최대한 기간을 당겨 늦어도 9월말까지 기가인터넷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을 다닐 때 2~3년 전부터 타사는 기가인터넷을 구축해 놓고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서비스는 곧 품질인데, 일단 품질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서비스 경쟁을 해야지, 뒤처진 상태에서는 어려워니까요. 요새는 고객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이제 kt가 타사업장보다 한걸음 더 빠르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초도사업인 대용량 OLT사업이 잠재된 리스크를 조기 발굴해 조속히 안정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첫 시험대와 같다. 새벽 1시를 향해가는 시각, 전송실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광대역 LTE-A’ 전국망 서비스! 품질의 우수성과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로 승부수를 던진다!

kt m&s 매탄직영점 & 용인마케팅부 유엔피 동백점

7월1일부터 ‘광대역 LTE-A’ 전국망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통사들은 자사 서비스 품질의 우수성을 앞 다투어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광대역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는 kt의 경쟁력은 단연 돋보인다. 영업 일선에 있는 직영점이나 위탁대리점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kt ‘광대역 LTE-A’ 서비스 실시에 따른 효과에 대해 이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신뢰도 면에서 고객 발길 끄는 ‘직영점’

먼저 찾아간 곳은 수원에 자리한 ‘kt m&s 매탄직영점’이다.

‘우리동네 유일한 kt본사 직영점’이라 적힌 현수막이 먼저 눈에 띈다. 매장이 이제 막 문을 여는 오전 시각, 직원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였다.

매탄직영점 유호선 점장은 “아무래도 kt의 직영점이라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kt그룹사로 통신 유통 전문 기업인 ‘kt m&s’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니 자본과 직원교육 면에서도 대리점과 좀 차이가 있죠.”라며 멀리서 부러 찾아오는 고객도 있다고 했다. 광대역 LTE-A는 광대역 20MHz 주파수



매탄 직영점 유호선 점장

225Mbps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kt는 타사 대비 2배 이상 많은 기지국과 5~20배 많은 중계기를 구축해 훨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최초로 ‘광대역 LTE-A’ 상용망을 구축한 이후 3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에 상용서비스를 제공했고, 본격적으로 전국 85개 시 및 주요 읍, 면을 대상으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 7월이다.

“기존 ‘LTE-A’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확실히 높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기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부분 저렴하고 선호하는 모델

을 구입할 수 있는 지 찾습니다. 앞으로 ‘광대역 LTE-A’의 모델들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영업하는 입장에서

는 휴대폰 모델들이 좀 더 확산되면 실적도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속도 자체에 민감한 젊은 고객들에게는 직원들이 직접 자신이 사용하는 ‘LTE-A’단말과 ‘광대역 LTE-A’단말을 비교 안내하면서, 고객들이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유도한다.

kt는 최근 마케팅 차원에서 유통망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2009년 합병 이후부터 무선은 대리점과 직영점을 통한 간접유통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가 최근 유선 판매를 겸한 영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유선에 대한 상품지식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무선만큼 익숙하지는 않다. 하지만 유무선 통합 서비스에 따른 복합 상품 할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고객들의 상

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kt의 유선은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유선을 이용해서 결합, 추가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타사에 비해 굉장히 많아요.”

유호선 점장은 kt의 정책적인 변화가 매장 운영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판매가 쉬워졌다고 한다. 다만 보다 나은 서비스에 걸맞게 매장 환경 또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대부분의 고객은 교체수요입니다. 서비스 부분에서 저희가 고객들에게 얼마나 만족도 있게 설명하고 통신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느냐 하는데서 지금은 판가름이 나죠. 다만 타사가 매장활성화로 환경을 바꾸고 있는데, kt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다 편안하게 조성했으면 좋겠네요.”

단골 행기는 전략적 서비스로 상권 압도

용인에 자리한 위탁대리점인 ‘kt 유엔피 동백점’ 또한 ‘광대역 LTE-A’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지리적으로 오아시스 상권을 형성하는 이곳의 영업은 소위 단골장사 콘셉트라고 손충휘 대표는 얘기했다.

“상대적으로 SK가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만, 저희는 이미지를 바꿔 놓았습니다. 고객들은 SK에서 하는 서비스가 kt에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타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같은 상품을 비교해 kt가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덕분에 요사이 이곳 고객들의 인지도는 kt에 쏠려있다.

“단순히 기지국 수가 많다, 적다는 것은 고객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를 느끼는 감이 중요하죠. 광고를 통해 kt ‘광대역 LTE-A’가 좋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장의 직원들이 그걸 얼마나 인지했고, 그에 대한 설명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는 교육 수준에 따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피 동백점 손충휘 대표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운 무선 영업 전략에 비해 유선은 그 반대다. 유선에서 절대적인 강세인 kt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다고.

“유선은 브랜드이미지로 kt가 1등입니다. 유선을 빼고는 무선 판매가 힘들어요.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는 유선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야 필수적으로 묶어서 판매가 되니까요. 동네 상권 중에 전

원단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타사 상품들은 품질 면에서 kt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가설이 안돼요. kt가 월등이 신청률이 높습니다. kt의 품질을 체감하는 부분이지요.”

손충휘 대표는 ‘광대역 LTE-A’출시와 함께 kt가 전국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대리점별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목표치를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대리점 운영의 기본적인 장벽이 제거된다면 유통망 확대에 필요한 우수 우수인력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진화하는 LTE의 속도만큼 kt는 향후 LTE 시장을 어떻게 선도해 갈지, 소비자들의 눈길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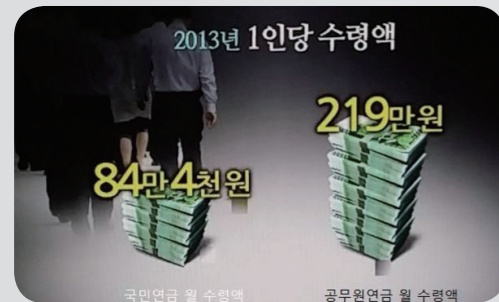
ISSUE & SOCIETY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두고 공직사회 확산 되는 ‘명퇴 바람’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벌써 올해 상반기에만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명예퇴직한 전체 인원수에 육박했다. 명예퇴직 급증 현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반공무원과 교원, 경찰 등 구분 없이 전방위적으로 관찰된다.

이 같은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명퇴 러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침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할 것이라는 소문에 공무원들이 연금이 줄기 전에 퇴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다. 더구나 연금 제도가 개혁되면 명퇴금이 사라질 것이라는 설이 돌면서 명퇴금이 있을 때 퇴직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신청자가 늘고 있다.

늘어만 가는 공무원연금 적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공무원연금 적자규모가 해마다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은 벌써 10조원이 훌쩍 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간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무려 53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2조원의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밝혔다.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적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년과 평균수명 연장 등 현재의 사회 추세를 고려하면 연금충당부채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 국가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 지금의 수입은 2023년 까지 연평균 1.9%씩 늘어나는데 비해 같은 기간 지출은 6.3%씩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이른바 보전금은 연평균 14.8%씩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움직임

이에 대해 ‘자신이 낸 것보다 훨씬 더 받아가는’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낸 돈의 1.3~1.8배를 받아가지만 3대 공적연금의 경우 2.3배나 된다. 2009년 제도개혁 이전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은 평균적으로 낸 돈의 3배 이상을 가져간다.

최근 정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내놓자 당장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라’는 여론도 한몫을 했다. 이에 각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의 방향을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은 43%를 깎는 개혁을 했지만, 공무원연금은 25% 깎는 것조차 미래세대로 떠넘겼다면 연금개혁의 기본방향은 장기적 연금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이후 5년만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정부

공무원연금 개정에 관해서 정부는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내년에 공적연금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은 연금의 재정을 추계하고 향후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재계산이 돌아오는 시기이므로 이 때에 맞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1주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서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하게 될 안전행정부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정부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놓고 갈등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연금 개혁 방침 계획 발표를 여론몰이로 비판하며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정부는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연금에 대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더욱 커 연금제도 손질에 대한 불안 심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령액을 향후 약 30년에 걸쳐 현재보다 20%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조기에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운운하는 말이 나올 경우 공무원노조는 100만 연금수급자와 함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관련, 어떤 개혁 방안도 결정된 바 없고 정년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 되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 스스로 자성에서 출발해,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가입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판검사, 대학교수와 같은 고위공직자들은 공무원연금을 수백만 원 씩 수령하는 데 비해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른 것을 예로 들며 일률적인 강도로 개혁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을 한편으로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강구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존치인가, 폐지인가 기로에 선 통신요금 인가제

20년 넘게 시행됐던 '통신요금 인가제'가 통신 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인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요금경쟁을 유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논란의 통신요금 인가제를 들여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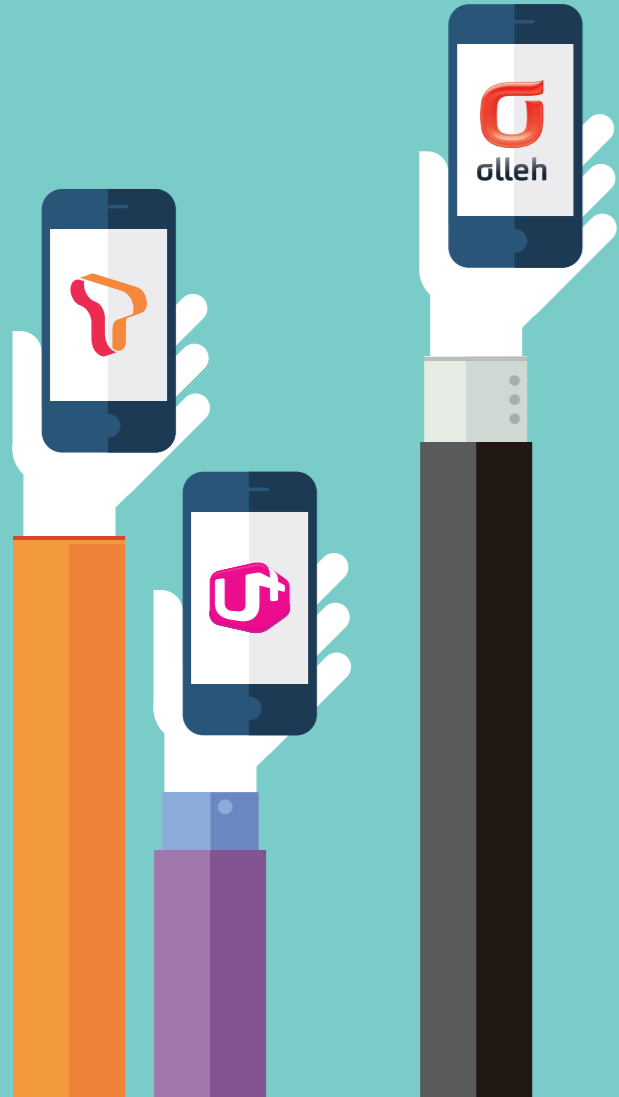
통신요금 인가제란 무엇인가

정부는 1991년 통신시장에 적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통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했다. 통신업체가 요금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현재 무선 부문은 SK텔레콤, 유선 부문은 kt가 인가 대상이다. 다른 사업자들은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데 시장 집중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 인가제가 자유 시장경쟁 체제를 방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내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소한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폐지 찬반 격론

정부는 인가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매 통신요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각 통신업체와 학계 및 시민단체도 찬반 입장이 나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소한 상품 변경이나 구간 조정 시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신속하게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규제가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요금 경쟁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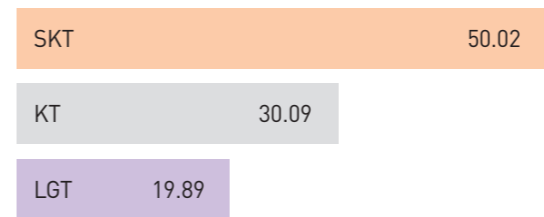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가제가 통신요금 인하를 막는 제도가 아니며 사업자 간 공정한 시장 경쟁이 마련된 이후에 폐지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kt는 'SK텔레콤이 8년째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지키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 경쟁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한 규제 장치가 인가제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역시 '현행법 상 지배적 사업자라 할지라도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은 신고만으로 가능해 인가제 폐지가 곧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가제 폐지로 사전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사후 규제 강화를 의미 하는데 현재 마련된 사후 규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의 구조적 경쟁 우위를 통한 부당행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점유율(단위 : %)



(자료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점유율 구도를 깨야 한다는 근거는 같으나,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폐지 반대 측은 '지금의 인가제는 일종의 가격 상한제라 통신요금 인하와는 관련이 없다'며 '소비자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폐지 찬성 측은 '요금 경쟁을 막아 놓으니 풍선 효과처럼 보조금 경쟁이 심화된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사업자끼리 경쟁을 촉진시켜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인가제가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방법과 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월평균 무선 통신비는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적용했을 때 115.5달러(약 12만원)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 결과 지금 통신요금 구조에서 소비자는 비싼 요금을 물고 단말기보조금으로 돌려받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다. 또한 이동통신 시장

의 5:3:2 점유율이 고착된 것은 인가제 때문이며 인가제가 통신요금 인하를 촉진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찬반 의견 정리

폐지 찬성	폐지 반대
요금 경쟁 시 통신사업자의 요금 출시 기간이 단축돼 요금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	1위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더욱 고착화하는 요금제를 내놔 후발 사업자를 위축시키고 독점이 심화될 것이다.
1위 사업자 시장지배율이 50% 이상인 외국에도 이 같은 제도는 없다.	요금규제는 해외와 국내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국내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규제완화와 폐지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	정부의 시장지배력 관련 규제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 사후 규제 관련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해법은?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 쪽에 무게를 둔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유지하려 하고, 경쟁 활성화 목표를 제대로 살리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개선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위 사업자가 50% 이상 점유율을 갖는 비정상적인 경쟁 구조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후에 자연스럽게 인가제를 폐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한 규제 완화와 요금 인하, 이용자 차별의 상관성을 분석해 정책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25Mbps 광대역 LTE-A 서비스 개시

kt가 모바일 혁명을 주도한다



과거 2G 기반의 이동통신환경에서 혁명을 몰고 온 3G 시스템.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를 연 3G 시스템은 일찌감치 초고속 LTE 서비스에 자리를 내주며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꿈의 속도를 실현하기 위한 광대역 서비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의 혁명을 맞이한다. 최고 225Mbps라는 꿈의 속도를 가능케 하는 진정한 의미의 진보된 (Advance) LTE-Advance가 현실로 다가왔다.

225Mbps 꿈의 속도 실현 LTE-A

기존 LTE 서비스에 3배나 빠른 진정한 의미의 '광대역 LTE-A'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kt는 현재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에 초고속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망 서비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광대역 LTE(1.8GHz) 주파수 할당조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됐다.

kt가 서비스하고 있는 광대역 LTE-A는 기존 광대역 20MHz 주파수 대역에 추가로 10MHz 대역을 묶어 최고 225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kt의 네트워크에는 광대역 LTE-A 기술이 모두 적용돼 있기 때문에 현재 출시된 '갤럭시 S5'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단말기를 이용하면 최대 225Mbps의 놀라운 다운로드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는 2배 빠른 광대역LTE 서비스를 지난해 9월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서울을 시작해 그해 11월 수도권 전 지역과 지하철 전 구간에 걸쳐 서비스를 확대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에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번 상용화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까지 3배 빠른 광대역 LTE-A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초고속 광대역 LTE-A 시대가 열리면 고품질 음악 서비스인 지니(Genie)와 모바일 IPTV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올레TV 모바일' 등의 서비스를 기존 LTE 대비 최고 3배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광대역 서비스의 핵심, kt의 '주력망 기지국'

현재 광대역 LTE-A 서비스와 관련해 전체 LTE 기지국 숫자는 'S'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속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Mbps 이상인 광대역 LTE 기지국은 kt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이동통신 대역별 무선국 현황'에 따르면 전체 LTE 기지국 숫자는 'S'사가 17만3219개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정작 LTE-A 본연의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의 핵심인 주력망 기지국의 수는 kt가 경쟁사를 크게 압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TE기지국 가운데 속도가 빠른 주력망이 되는 광대역 LTE 기지국은 kt가 10만7097개로 선두를 차지했다. 반면 'S'사가 6만3885개, 'L'사가 3만7619개에 머물렀다.

'광대역 LTE' 기지국은 광대역 LTE-A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광대역 LTE-A는 광대역 LTE가 기반이 되는 것으로 모든 지역에서 광대역 LTE를 지원하느냐가 광대역 LTE-A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 요소다. 결국 광대역 LTE가 전국 곳곳에서 완벽하게 제공되느냐가 광대역 LTE-A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kt는 큰 투자를 통해 1.8GHz의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한 바 있다. 또한 고액의 투자비를 들이며 10만여 개 이상의 국내 최

다 광대역 LTE 기지국을 구축해 전국 100% 광대역 LTE 통신 가능구역(Coverage Area)를 갖추고 있다. 현재 경쟁 이동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1종뿐인 광대역 LTE-A 단말을 별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kt는 100% 모든 단말기가, 100% 모든 지역에서 광대역 급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kt 고객은 단말기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신가능구역(Coverage Area) 및 단말 별 이동통신 3사 속도 비교

최대속도 기준	광대역 LTE-A 지역	그 외 지역
광대역 LTE-A 지원 단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사 동등 3사 모두 광대역 LTE-A (225Mb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kt 우위 kt 광대역 (150Mbps 이상) 경쟁사 협대역 (75Mbps 이상)
그 외 단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kt 우위 kt 광대역(100Mbps) 경쟁사 협대역 (75Mb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kt 우위 kt 광대역 (100Mbps 이상) 경쟁사 협대역 (75Mbps 이상)

광대역 LTE-A, 우리 삶에 무엇이 달라지나?

광대역 LTE-A는 최대 225Mbps의 엄청난 전송속도를 구현한다. 이는 1초에 최대 225MB 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75Mbps의 기존 LTE보다 3배 빠르며, 3G 보다는 15배 빠른 속도다. 이론적으로는 1G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37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성 동영상이다. 영화를 비롯해 뮤직비디오 등 각종 영상을 이용할 때 초고속 LTE-A 서비스가 구현됨에 따라 몇 초의 작은 버퍼링조차 생기지 않는다. 사무실에서의 화상회의 역시 끊김 현상이 없어진다. 초고속 LTE-A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력망 기지국의 안정된 운용으로 kt 고객들은 실시간 Live 영상을 아무런 끊김 없이 생생한 영상을 즐길 수 있다.

자연과의 진정한 소통, 이제는 백패킹이다

캠핑이 대세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캠핑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고기 구워먹고 술 마시고 집에 오는 일이 돼버렸다. 도시생활에서 비롯된 일상의 피로와 병을 자연 속 하룻밤을 보내며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단지 흥을 위한 캠핑을 자제하고 조용히 짐을 꾸릴 필요가 있다. 자신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가지고 떠나는 '백패킹'은 그런 의미에서 정직하다. 숨겨진 명소로 몸도 마음도 가볍게 백패킹을 떠나보자.

백패킹은 경쟁이 아니다

'깊어지고 나른다'는 뜻의 백패킹(Backpacking), 캠핑을 즐기는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자연 속 힐링을 외치면서도 도시 속 습관은 버리지 않는다. 백패킹의 목적은 누가 더 많이 짊어 메고 멀리 가는가를 경쟁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자연과의 소통이다. 야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배낭에 짊어지고 산과 들, 계곡으로 떠나는 백패킹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여행이다. 힘들게 산 정상에 발도장을 찍을 필요도 없고, 온갖 짐을 차에 실을 필요도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캠핑을 즐기면 된다.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덜어내고 텐트, 침낭, 매트리스, 재킷, 체어 등 백패킹에 필요한 장비들은 가능하다면 경량으로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대한 가볍게 짐을 줄여 가는 것은 버릴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인다는 것과도 상통한다. 숲이 우거진 조용한 캠핑장에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계곡이나 등산로까지 있다면 그곳이 바로 백패커들이 찾는 낙원이다.

명성산 자락 16만평 숲, 산정B캠프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에 걸친 명성산은 골짜마다 폭포를 품고 있어 맑은 날에도 물 소리가 들리는 백패킹의 명소다.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지면서도 완만한 산세를 지니고 있다. 포천은 또한 산정호수가 유명하다. 산정호수 주변은 유원지로 산책길과 식당들이 즐비하고 펜션, 오토캠핑장도 도로를 끼고 산재해 있다. 산 주변에 오토캠핑장이 많다 하더라도 백패커들이 원하는 자연 환경이 아니라면 무용지물. 다행히도 명성산 근처에는 숲이 우거진 환경의 조용한 캠핑장이 있는데 바로 산정B캠프다. 오토캠핑장이기도 한 이곳은 몇 개의 건물이 있을 뿐 16만평 부지의 주인은 바로 나무들이다.

캠핑장은 명성산 기암절벽을 병풍으로 세워두고, 올 사람만 오라는 듯 거친 길로 손님을 맞이한다. 차체가 가라앉을 정도로 짐을 너무 많이 실은 채 이 길을 올라가다가는 돌맹이와 금속이 굽히는 소리를 듣고 만다. 깔끔한 시설의 캠핑장만 다니던 이들에게는 어쩌면



산정B캠프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413-5(산정호수로 966) / T. 070-7681-5479 / 4인가족 차량1대 기준 이용료 3만원



야생이란 말이 절로 생각날만한 곳이다.

30년 전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기 시작해 캠핑장이라는 간판을 걸었지만, 많은 손님이 찾아오기보다 그저 자연에서 쉬었다 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 3개의 야영장이 있는데 덩치가 큰 텐트보다 작은 백패킹용 경량 텐트를 설치한다면 자연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 백패킹은 주로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오토캠핑과는 조금 다르다. 비가 오지 않는 한 굳이 좁은 텐트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텐트 설치를 끝냈다면 자연 속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면 된다. 명성산의 웅장한 바위모습을 보고 싶다면 산정호수 주차장 뒷길로 난 등산로를 따라 그 앞 망무봉으로 가면 된다. 440m의 낮은 봉우리로 30분 정도면 정상에 닿는다.

제주가 숨겨놓은 비경, 방선문 계곡

제주에는 수많은 오름과 올레, 곳자왈 등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환경에 제주삼무야영장, 서귀포의 모구리아야영장 등의 야영장도 유명하다. 특히 백패킹을 즐길 만한 장소로는 안덕계곡 창고천을 비롯해 가시천, 무릉천, 색달천, 중문천, 도순천, 교래천, 금성천 등지가 제격이다. 그 가운데 액티브한 코스는 방선문(訪仙門)계곡이다. 제주시 오라2동 한천 상류에 숨은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이자 영주10경에 속한다. 옛날 등반길이 없을 때 이 계곡을 따라 한라산 백록담을 오르내렸다.

백패킹 코스는 계곡 초입부터 방선문까지 520M 거리다. 계곡은 건천이라 비가 오지 않는 한 아무 때나 걸을 수 있다. '신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이름처럼 계곡은 넓고 깊고 길다. 촛농처럼 굴곡진 조면암이 계곡 가득 물결친다. 계곡 양쪽은 깎아지른 절벽이다. 이 절벽을 뚫고 나온 나무와 풀이 울창한 숲을 이룬다. 식생도 다양해서 소나무 구실잣밤나무, 사철나무, 철쭉, 마취목, 사스레피나무, 풀고사리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천상의 선녀들이 먹었다는 천상과나무도 있다.

계곡 트레킹은 굴곡진 바위를 오르내리기를 반복한다. 너럭바위, 남근석 등 전설과 사연을 품은 바위들이 저마다 볼거리다. 방선문은 제주도 방언으로 '들렁귀'라고 부른다. '뿔어진 영덕(바위)'이란 뜻이다. 이곳에는 또 50개가 넘는 바위에 그 옛날 시인묵객들이 새겨놓은 글귀가 남아있다. 신선을 부르는 '환선대(喚仙臺)', 신선을 만나는 '우선대(遇仙臺)',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등영구(登瀛丘)'를 비롯해 조선말 대학자인 면암 최익현도 이름 석자를 남겼다. 500여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지금껏 글귀는 선명하다. 최익현 선생은 이 계곡의 아름다움에 반해 한라산 기행문 <유한라산기>를 남기기도 했다.

방선문 앞에서 계곡은 둘로 갈라진다. 왼쪽으로는 백록담 탐라계곡, 오른쪽은 열안지오름 동쪽계곡으로 이어진다. 두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방선문에서 합쳐서 한천으로 흘러든다.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신선이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다. 길목마다 자리한 너럭바위에서 발품을 쉬어가며 먼 옛날 이야기에 젖다보면 이곳이 바로 선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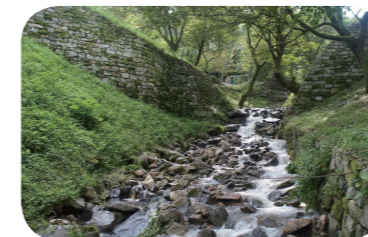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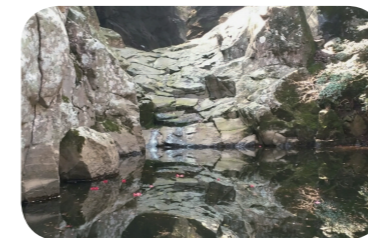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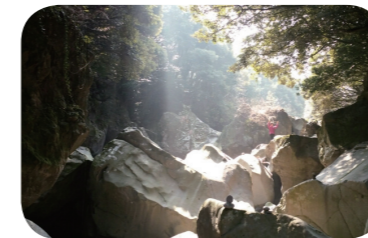
방선문 계곡

찾아가는길: 제주국제공항에서 신제주로터리와 연동사거리를 지나 아연로를 따라가다 오남로 쪽으로 우회전한다.

제주도 내 유명 캠핑장

제주시 회천동 '제주삼무야영장'
T. 064-721-2135

서귀포시 성산읍 '모구리아야영장'
T. 064-760-3408.



건강 100세, 문제는 혈관

딱딱한 핏줄은 만병 원인... 평소 혈관건강 관리해야

무더운 여름, 연일 기온이 상승하면서 주의해야 할 여러 질병 가운데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 바로 혈관 관련 질환이다. 흔히 겨울철 질환으로 여기지만, 사실 추위로 혈관이 위축되는 겨울 이상으로 무더위가 심해지는 여름에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올라간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지난 7년 동안 대표적인 혈관 관련 질환인 뇌졸중 진단을 받은 응급환자 중, 7~8월 발생한 환자수가 12월과 1월보다 많거나 비슷했다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폭염에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로해질 경우 고혈압과 혈전이 생기기 쉬워 혈관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혈관 관리, 건강을 위한 첫걸음

우리 몸의 혈관 길이를 모두 더하면 10만여 km, 무려 지구 둘레의 2바퀴 반 길이이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지나고 있는 혈관을 통해 골고루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된다. 매순간 심장은 힘차게 일정한 속도로 혈액을 뿜어 혈관 내 압력을 증가시킨다. 이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액을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기 위해 혈관은 몇 겹의 탄력성 있는 층으로 이뤄져있다. 이러한 혈관이 노화 등으로 탄력을 잃거나, 혈전으로 통로가 막혀 좁아지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발생한다.

이 경우 혈압을 견디지 못해 동맥혈관이 터지거나, 온몸 곳곳에 혈액을 보내지 못하는 허혈현상이 생기는데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이 바로 대표적인 혈관 질환이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 막히는 것이 뇌경색(허혈뇌졸중)이고, 핏줄이 터지는 것이 뇌출혈 즉 출혈뇌졸중이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처럼 생명과 바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평소 세심한 관리와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혈관건강 악화의 주범은?

노화로 탄력을 잃은 피부와 주름살은 눈에 쉽게 띄지만 혈관의 노화는 서서히 진행되기에 초기에 금방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평소 혈압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혈압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직접적 요인이다.

고혈압이 있으면 탄력성을 잃은 뇌혈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질 가능성이 높다. 고혈압의 원인은 다양하나 유전과 노화를 제외한 주된 생활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운동 부족, 짜게 먹는 식습관 등이 꼽힌다.

이 외에도 흡연, 음주, 비만, 고지혈증 등은 혈관에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몸의 혈액에 지방질이 많은 상태를 뜻하는 고지혈증은 평상시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 없이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치명적인 뇌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니 더욱 주의를 요한다.

혈관건강, 예방이 답이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평상시 건강을 지켜야 한다. 흡연과 음주, 짜고 지방이 많은 식단을 피하는 등 생활 습관만 교정해도 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여름철 땀 배출량이 늘어 혈액 점도

가 높은 상태에서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과 음주 시 알코올은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과 뇌의 혈관을 잘 막히게 해 폭염에는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더운 날씨에도 갑자기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주의하자. 차가운 물 때문에 급격하게 혈관이 수축되면 갑자기 혈압이 올라 혈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싶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물 온도를 서서히 낮추는 것이 좋다.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폐경 이후 1~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이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거나, 운동할 때 금세 지치고 숨차거나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느끼면 이미 혈관의 탄력성 저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므로 평소 적절한 치료와 함께 건강관리가 우선이다.

생활 속에 쉽게 실천하는 혈관 관련 도움 TIP

① **스트레칭** -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뭉치고 걸리는 여러 통증이 나타난다. 스트레칭은 근육 등 신체의 모세혈관에 산소공급을 원활히 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한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경직된 몸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풀어주는 기능을 한다. 바빠서 따로 유산소 운동을 하기 힘들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가볍게 몸을 쭉 펴고 잠깐 스트레칭은 어떨까.

② **달고 짠 음식은 멀리하고, 견과류를 가까이** - 호두, 땅콩, 아몬드, 잣과 같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이다.

불포화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수치를 떨어뜨리고 중성지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루 한 줌 견과류 섭취가 심혈관 관련 유병률을 30%나 줄인다고 한다.

③ **충분한 수면과 휴식** - 최근 네덜란드의 한 국립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만으로도 불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이 22% 낮아지며,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는 43%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분한 수면시간은 단독만으로도 혈관 질환 리스크 예방에 금연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 다른 건강 습관(운동, 식사, 음주, 금연)을 실천하기 힘들다면 일단 충분한 수면부터 시작하자.

Voices of Readers

고객의 소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마음이 통하는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kgb@kt.com)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서울남부유선운용센터 강성범 조합원

노보 잘 읽었습니다. 좋은하루 행복만땅 시간 되십시오. 마음을 통하는 '길' 노보를 접하면서 막연히 받아보는 무관심에서 다시 한번이란 화두를 던져봅니다. 현실적인 현장24시와 칼럼 등. 해피투게더에서 증가하는 우울증 예방과 대처법. 경쟁환경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란 질문에서 대화와 운동으로 치유할수 있다는 답이 있다고 합니다.

노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희망차고 새로운 소식을 많이 기대하고 응원해 봅니다.

수도권강남고객본 박정상 조합원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복지 내용이 좀더 많이 게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복더위에 조합원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대구네트워크운용본부 성현주 조합원

지금까지 여행 칼럼을 즐겨보았는데 이번 '길따라 멋따라'는 주택에 대해 나왔네요. 사실 아직 주택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아파트보다 주택에 더 관심이 갑니다. 아파트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독주택의 아늑함은 없는 것 같아요. 저렴하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정보 등이 참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가락지점 서성제 조합원

한번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칼럼은 우리사

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적나라하게 파헤친거 같습니다.

KT노동조합 소식지인 '길'에서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다같이 고민하자는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동반성장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kt 조합원인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충실히 생활 합시다.

서울남부유선운용센터 나병삼 조합원

날씨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너무 무리한 활동으로 더위 드시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구리지사 유후정 조합원

은퇴 후, 인생 2막을 위한 희망찬 도전 등은 지금 kt 조합원들에게 나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 kt! 한다면 한다!!!

전남고객본부 김광수 조합원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소식지를 보고 유용한 정보와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선 사회 문제와 건강, 그리고 노후 문제 등 다양하게 접근한거 같아 유익하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TTU QUIZ

1994년 6월20일, kt에 의해 개통된 '코넷'에 부터 현재의 '기가 인터넷'까지... 대한민국의 인터넷이 상용화 된지는 올해로 몇년째 일까요? (힌트 14~17페이지 참고)

정답 보내주실 곳 : kgb@kt.com(김근배 홍보국장)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다운플랜 웨딩서비스 상품안내

웨딩 서비스 상세내역

품 목	세 부 사 항	
본 식	신랑 의 상	턱시도 및 연미복 또는 모닝코트 (해당 샵의 최고급 신상품 사용)
	신부 의 상	신상 드레스 (해당 샵의 최고급 신상품 사용)
	헤어 메이크업	신랑, 신부 제공
	부 케	부케 1개, 부토니아 1개, 코사지 6개
	본 식 사 진	신랑신부용 원판 및 스냅합본 30p 1권 제공
	이벤트 예식 기획 진행	담당 플래너와 상담을 통한 맞춤 예식 지원
	웨딩플랜 제공	담당 웨딩플래너와 1:1 웨딩 컨설팅 제공
예 식 장 소	지정 웨딩홀 및 호텔 (상담 후 결정)	
리 허 설	신랑 의 상	턱시도 제공
	신부 의 상	드레스 2벌, 파티복 1벌 제공
	별 도 의 상	한복, 캐주얼 등의 의상은 개별 준비
	헤어메이크업	신랑, 신부 제공
	앨 범	11x14인치 20p 제공
	액 자	20R 액자 제공
웨 딩 카	벤츠, BMW, 제네시스, 에쿠스 등 제공 (기사 포함 및 미포함 등 회원 선택)	
서 비 스 품 목	웨딩카 장식 및 비품 지원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방명록 2권, 장갑7족, 봉투, 펜) 헬퍼비(본식, 리허설) 제공 피팅비 2회까지 무료 제공	
기 타	DVD 또는 페백음식 중 택1 제공 웨딩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진 원본CD(본식, 리허설) 제공 본사 웨딩플래너가 직접 방문 최적 컨설팅 제공	

■ 전국 웨딩 제휴 사업자

구 분	서 울	경기 / 인천	충 청	전 라 도	경 상 도	강 원
웨 딩 홀	246	210	47	30	110	39
스 투 디 오	60					
드 레 스	40		4	5	9	3
메 이 크 업	10					
혼 수 / 기 타	15					

* 웨딩 서비스는 다운 1호, 다운 1-13호(300만원 상품)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